



# 살아 숨쉬는 '늪의 가치' 알려

‘우포늪’

강병국 글 / 성낙송 사진  
지성사 / 1만2천원

만 아니라 자연 늪으로서도 수백억원 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몇 십 년간 경제성장과 개발에 급급한 나머지 늪과 주변의 환경이 심하게 훼손, 파괴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가치를 인정받아, 습지보전국제협약(람사협약)의 습지목록에 등록되는 등 보전을 위한 움직임이 하나둘 일고 있다.

이 책은 처음 늪을 찾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늪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늪을 찾아가는 길부터, 그곳에 사는 생물들과 늪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기 위해 늪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학생 또는 어린자녀들과 함께 생태교육을 하기에 적당하다.

1998년 '생태계보고, 늪을 살리자' 기획보도로 한국기자협회로부터 한국기자상을 받은 국제신문 강병국 사회2부장이 집필했다. 늪에 대한 애정으로 사단법인 '푸른우포사람들'의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사진은 사진영상학을 전공한 성낙송 씨의 것으로, 성씨 또한 '푸른우포사람들'의 이사로 활동 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우포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연늪으로 새와 어류, 곤충, 물풀 등이 서식하는 생물의 천국이다.

우리 국토의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환경 관련서들의 출간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우포늪>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자연 늪인 우포늪의 모든 것을 담았다. 우포늪이 어떤 곳이며,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등 우포늪의 생물학적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우포늪이 야생(野性)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늪은 지구상의 수많은 습지 가운데 하나이다. 습지란 강, 하천, 갯벌,

수면 면적 70만평 · 생명체 1천여종 서식

끊임없는 생태 교류...300년 후엔 육지화

논 등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을 말하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5분의 1이 습지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늪이란 것도 원래는 호수처럼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점차 줄어들면서 질퍽한 땅으로, 다시 메마른 땅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중간 형태이다. 우포늪은 1억4천만년 전 공룡이 살던 때에 낙동강이 끊임없이 범람하면서 천천히 형성된 배후습지로, 낙동강에 사는 생물들과 끊임없이 생태교류가 이루어

어진 곳이다. 우포늪 역시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약 300년후엔 육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수면의 면적만 70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우포늪에는 약 1,000여 종의 생명체가 어울려 살고 있다. 새와 어류, 곤충,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많은 물풀들, 아름다운 물안개, 멋진 노을이 기다리는 우포늪은 자연생태보전지역이다. 우포늪은 수생식물의 보고이자, 살아있는 곤충박물관이며 철새들의 낙원이다. 단순히 생물의 천국으로서 뿐

‘양철북’

이산하 지음  
시공사 / 8천원



<양철북>은 제4·3항쟁을 다룬 장편 서사시 '한라산'과 기행문 <적멸보궁 가는 길>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시인 이산하의 자전적 성장 소설이다.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젊은 법운

## 수행승 · 문학소년의

## 좌충우돌 성장기

스님과 이제 막 성년식을 앞둔 문학소년 철북이가 삶의 화두를 찾아 떠나는 좌충우돌 성장기가 펼쳐진다.

고교시절 겪었던 한 스님과과의 짧지만 인상적이었던 여행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저자가 오래도록 품어왔던 문학적 화두의 씨앗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났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저자는 소설가를 꿈꾸던 자신의 옛 모습을 이제 막 성년식을 앞둔 문학소년 철북에 투영시켜 젊은 날의 꿈과 이상,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웃음과 눈물이 가득한 에피소드 속에 담았다.

원 살이 넘어 뒤늦게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폐사가 되다시피 한 철북을 손수 다시 지은 철북의 외할머니이자 수국사 주지인 경승 스님, 6·25전쟁 중에 남편과 자식들을 잃은 후 정처 없이 떠돌다 절 살림을 도맡게 된 노보살, 청도 운문사 비구니 승가대학을 졸업한 정식 승려이자 소녀와 같은 천진난만한 지니 해인 스님, 그리고 고시 재수생 낙수... 아름다운 산사에서 그들과 어울려 문학도로서의 꿈을 키워가던 철북은 어느 비오는 날 법당 돌담 앞에 쓰러진 한 객승의 공양당번을 하게 되면서 고행승 법운과

의 뜻깊은 만남을 갖게 된다.

묵언정진과 만행, 할사경 수행 등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려는 법운과 문학상을 통한 홀로서기의 진통 과정을 겪는 철북은 각각 존재론적 성년식과 생물학적 성년식이라는 과정에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소설은 '두 개의 성장'을 병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운 스님의 구도행이 전통적인 선불교의 방식을 좇는다면, 철북이의 성장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비유를 따라간다. 법운과 철북, 이 두사람의 성장을 조화롭게 병치시켜냈다는 점에서 성장소설로서의 매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투박한 경승도 사투리의 대화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삶의 목적과 방법론이라는 다소 심각한 주제를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감동으로 풀어낸다.

이은자 기자

‘집단정신의 진화’

하워드 블룸 지음 / 양은주 옮김  
파스칼 북스 / 1만6천원



## 다양한 네트워크로 새집단 출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이라면 깨달음의 실체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체득하기를 원한다. 필자의 좁은 소견일지도 모르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영역에는 존재의 본질과 의식의 실체에 대한 자각이 포함되어 있다. 존재 그중에서도 생명을 가진 개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각 개체는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영원한 숙제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집단 정신의 진화'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 있었다.

하워드 블룸은 매우 해박한 지식과 사유체계를 갖춘 진화론자로 생각된다. 적어도 이 책만으로 본다면 인간의 육신이 형성되고 정신의 성장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는데 손색이 없는 충분한 예화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오(頓悟)'로 표현되는 불교적 깨달음은 참나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일대사(一大事)'가 있기까지에는 많은 수행과정이 축적되어야 한다.

인간 정신의 진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 ‘동조집행자’ 등 5가지 주요 變因 설명

다양한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기존의 사고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블룸은 이 책에서 개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집단정신의 하위체계에 불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정신(mass mind)을 '분열하려는 본능과 서로 모이려는 본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하는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집단정신 속에는 다섯 가지의 주요 변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순응과 일치성을 강요하는 '동조 집행자', 창조적 다름을 유발하는 '다양성 생성자', 우리 몸의 조직과 정신에 심어진 '내부 심판관', 집단 심리 속에 숨어 있는 '자원 이동자', 그리고 어떤 부족 혹은 종이 사회 집단간의 경쟁에서 승리할지를 정하는 '집단간의 토너먼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들이 개체와 집단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정신을 만들어 낸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블룸은 인간 내부의 신경계와 의식의 변화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개체의

정신을 만들어 내고 그 정신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면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집단정신을 형성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였다.

집단정신은 그 하위 구성원의 의식작용을 왜곡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는 주장에 따르면 과연 나의 진면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생긴다. '현실은 공유된 환각이다'라는 표현을 접하면서 불교에서 현실을 왜 '사바세계의 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어렵잖이 알 수 있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조차도 집단 정신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왜곡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들의 영향으로 얼룩지지 않은 개인의 지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블룸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나아갈 지평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우리의 상상 밖으로 빠져 나오기를, 그래서 새로운 현실을 향해 우리가 손짓하며 다가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에게만 창조적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화의 자의식이며, 진화의 대뇌 전두엽

이며, 진화의 손끝이다. 또한 우리는 살아

야 있는 차세대별이다. 그리고 35억 년이나 나이를 먹었지만 우주의 시간으로는 아직 사춘기에 불과한 그 무엇의 일부뿐이다. 우리는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의 이종간의 정신을 이루는 뉴런인 것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우주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하나의 완벽한 우주이며 다음 세계를 창조할 진화의 주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일체(一即一切)'의 의미와도 일정 부분 상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집단정신이 개체와 집단의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과 살육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행복과 번영을 꿈꾸는 패러독스의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블룸은 '나노사이보그 박테리아' 집단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인류는 번영을 위하여 인터넷망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이 인류의 번영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집단정신의 지혜를 양산하는 글로벌 브레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유철 교수 /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집단정신의 진화>는 미국 심리학자·정치 과학 이카테미 회원으로 활동하는 하워드 블룸이 집단정신의 일관된 관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행태와 역사, 그리고 박테리아 현대의 경제, 문화적 현상까지를 설명한 책이다.

고요이책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 www.oachim.co.kr 도매일인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생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훌훌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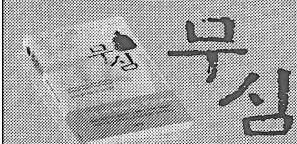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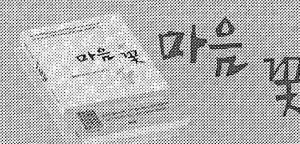
이지엄 · 정성욱 글  
울칼라 | 값 9,900원

동자승 이야기

# 어린그물



무심 | 경허큰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명반 산. 붓을 잡지도 한 지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깊은 판법이야이다. — 중앙일보 경허큰스님 저술 1 편역 석영경 (값 6,500원)



마음꽃 | 경허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편집자 리뷰) 경허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 성철, 만해, 경봉, 효봉스님이 나는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말안걸'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배, 단행, 성철, 효봉스님 지어 | 값 9,500원